



신주가 배정되어서 증가된 주식의 수만큼 주가가 조정되는 것이 기본 권리락의 개념입니다.

-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는 모두 권리락이 발생하지만 그 이후의 주가는 무상증자는 상승, 유상증자는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유상증자 무상증자 권리락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차트만을 본다면 갑작스러운 폭락으로 보여진다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. 주의합시다.
- 배당 권리락은 자동적으로 주가가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차익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자들의 매도로 하락하는 것입니다. 보통 예상되는 배당금액만큼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#### ▶무상증자 권리락 VS 유상증자 권리락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?

무상증자든 유상증자든....증자를 하면 권리락을 겪게 되는데요....권리락 자체는 일시적인 주가의 하락이지만... 궁극적으로 주가는 자신의 갈 길을 가기 때문에 실제로 권리락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."

다만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게 되는데요...언뜻 보기에는 자본금이 늘어나는 유상증자가 좋아보이지만 실상은 반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.

이 경우에도 다양한 변수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보편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
**권리락**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할 때에 자  
주 보셨을 단어 입니다. 사전적 의미로는 회사  
가 증자를 할때, "어느 일정한 기일까지 본 회사  
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 신주를 배당하기  
때문에 ~~그~~ 이후에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권리  
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.

간단하게 권리락이란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 
배정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. 즉,  
만약 오늘인 9월 8일에 권리락이 발생했다면,  
오늘부터 주식을 산 사람들은 권리가 주어지지  
않게 되는것이고, 어제까지 주식을 보유한 사  
람에게만 신주를 받을 권리를 주게되는 것이  
죠. 락이 없어졌다는 뜻한다고 보시면 편하겠  
습니다.